



광전이 이끄는 새로운 질적 미래 ... 2025 장춘국제광전자박람회 성황



6월 10일, '2025 장춘국제광전자박람회'가 장춘시동북아국제박람센터에서 개최되었다. 4일간 개최된 이 행사는 '광전이 이끄는 새로운 질적 미래'라는 주제 아래 광전자정보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과 최신 제품을 선보이며 과학기술과 시장, 프로젝트와 자본, 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교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광전자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총 8.6만평방미터 규모의 이번 박람회는 6대 광전자산업군집과 15개 세부 분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저고도 비행체 및 무인운전 동적 시연 구역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관람 경험을 선사하며 신흥 분야에서의 광전자기술의 응용과 발전을 더욱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행사 기간 '2025 Light 국제회의', '중국광학학회 학술대회' 등 주요 학술 행사와 주제 활동이 연이어 개최되었는데 다양한 분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광전자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가속화하며 산업 고도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많은 광전자정보 기업들이 참여해 첨단 혁신 제품들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중 장춘장광박상(长光博翔) 무인기유한회사의 제품이 큰 주목을 받았다. 관련 책임자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회사는 세계 최초 '쌍날개 수직 리프트 고정 무인기'(双飞翼垂直起降固定翼无人机) 정구 전 라인업

제품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부대 설비인 광전자 포드(光电吊舱), 멀티스펙트럼(多光谱) 카메라 등 다양한 하중(载荷) 부품 장비들도 함께 전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무인기의 '비행 플랫폼 + 스마트 하중 +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통합된 산업용 솔루션을 종합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무인기 기술의 더 다양한 분야 적용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기업외 미국, 독일, 일본 등 7개국 850개 광전자기업이 참가했다. 각국의 참가업체들은 광전자정보 분야의 첨단기술과 최신 제품을 선보이며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했다.

근년에 장춘시는 광전자박람회를 계기로 광전자산업 생태계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춘시공업정보화국 방술화(方述华) 국장은 "지난 박람회에서는 총 91개 핵심 프로젝트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금액이 20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50% 이상의 프로젝트가 이미 실행에 착수했으며 7억원 규모의 차량용 스마트 가스센서(气体传感器) 프로젝트를 포함한 총 31개 사업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2025 장춘국제광전자박람회는 광전자정보 분야의 최신 성과와 발전 동향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광전자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 손맹번기자

긴쥘린 뉴스

길림성 주민 소비 가격 전년 대비 0.1% 하락

5월달 길림성 주민 소비 가격이 동기 대비 0.1% 하락했다. 그중 식품 가격은 0.1% 상승하고 비식품 가격은 0.1% 하락했다. 소비품 가격은 0.5%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은 0.6% 상승했다. 5월달 길림성 주민 소비 가격은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중남산 : 당황할 필요 없어

최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유행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공정원 원사 중남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전염성이 강하지만 병원성이 많이 약해졌다."며 "현재 신종 코로나는 독감과 마찬가지로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장백산풍경구 입장권 반값 할인!

6월 11일, 길림성장백산풍경구 관리유한회사는 <대학입시 수험증 또는 입학통지서로 입장권 반값 정책을 향수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 6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생들은 2025년 대학입시 수험증과 입학통지서로 장백산풍경구, 화

평산지운동공원 트래킹공원, 홍석봉풍경구, 늪은고성풍경구, 취룡화산석림풍경구, 취룡화산온천(황관점, 람정점) 등 여러 풍경구의 입장권 반값 우대 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종합

길림성에서는 어떻게 '삼림곡창'을 든든히 구축했는가

왕청현 목이버섯 재배 하우스에서는 요즘 봄 목이버섯 수확이 한창이다. 왕청 목이버섯은 연간 6.5억주머니의 재배량과 34억원의 생산액으로 '중국 농산품 100강 표지성 브랜드'의 급자답을 쌓아올렸다.

'작은 목이버섯이 큰 산업'으로 발전된 이 혁신적인 사례는 88.79%의 삼림면적 비율을 지키면서도 산림이 준 선물을 생태적 재부로 전환시킨 생동한 실례로 꼽힌다.

이는 '삼림으로 식량을 대체'한 단순한 개념이 아닌, 식량에 대한 인식의 혁명이다. 2025년 중앙 1호 문건은 처음으로 '삼림곡창'(森林粮库)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확정했는데 '대식물관'(大食物观)이 어떻게 산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까? 어떻게 삼림을 식량안전의 '록색 새진지'로 만들 것인가?

길림성의 실천은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 제기

2025년 중앙 1호 문건은 처음으로 '삼림식품을 발전시키고 '삼림곡창'을 풍부히 하자'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 상층설계의 배후에는 '전통적 식량관'에서 '다원적 식량 공급'으로의 국가 식량안전 사고방식의 심층적인 변혁이 있다.

길림성에서는 어떻게 '삼림곡창'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었을까?

길림성림업산업계획도에서의 '동·중·서 3대 배치'가 명확한 길을 제시했다. 동부지역은 홍송과 림하인삼으로 '림체적인 곡창'을 구축하고 중부지역은 꽃사슴 사육과 개암 등 특색 경제림으로 '특색곡창'을 활성화하며 서부지역은 사시나무(沙棘)와 목초로 '생태곡창'을 만드는 것이다. 2024년까지 전 성 림하경제가 리용한 림지면적은 500만헥타르에 달했으며 전 성 림업초원 총생산액은 사상 처음으로 2,000억원을 돌파해 32% 성장을 기록했다. 이 수치들은 '삼림곡창'에 대한 가장 직관적인 응답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배치로 전 성 림지 종합 리용률이 32%에서 68%로 향상되며 '록색 증가'와 '소득 증가'의 쌍방향 증가를 이뤘다고 지적한다.

동·중·서부의 차별화된 산업 배치가 길림성이 삼림자원 가치를 발굴하는 '선수'(先手棋)라면 '길상삼림사고'(吉祥森林四库) 건설은 전역 자원 협동 발전 구도를 재구성하는 '동

력원천'이다.

'길상삼림사고'를 혁신적 담체로 삼은 림업 배치는 길림성의 전략적인 안목을 돋보이게 한다. '산에 물을 모아놓고 숲에 식량을 저장하며 수림에서 소득을 올리고 나무에 이산화탄소를 가두는(蓄水于山、藏粮于林、摇钱于树、固碳于木)' 네가지 기능을 확정하고 시범성(示范省)을 구축했다. 즉 생태 장벽을 굳건히 하면서 '량산'으로 전환하는 통로를 개통하여 자원 육성, 과학기술 능력 부여와 이산화탄소 흡수 가치(碳汇价值) 등 다차원 발전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림업 현대화 건설에서 생태 효익과 경제 효익을 동시에 중시하는 전망적 사고방식을 보여주었다.

길림성 림업초원부문에서는 <'길상삼림사고' 건설 실행 방안>의 초안 작성을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가 관련 부문과 연계하여 상층설계를 보완했으며 전략 배치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켰다. 또한 사고(四库) 건설의 전면 기능을 년간 중점 임무로 삼고 10대 공정의 실시를 통해 종자묘목, 종자 품질, 과학기술, 감축 등 네가지 협동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청사진 계획이 전면적 실행 단계로 전환되도록 했다. 이는 림업 건설이 단일한 기능에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준다.

이 전략은 삼림자원을 식량안전의 중요한 예비(备份)와 록색 발전의 경제 동력 및 '탄소중립' 목표의 생태적 지원으로 전환해 '삼림에서 종합 효익을 창출한다'는 국가 전략의 새로운 실행 경로를 개척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는 생태경제 고품질 발전에 복제 가능한 '길림성의 해결법'을 제공했다.

해결책

882만헥타르의 림지가 어떻게 푸르름을 지키면서도 부를 창출할 수 있었을까?

'대식량관'의 시대적 명제 아래 길림성은 록색혁명을 통해 산림 가치를 재구성하고 있다. 제도혁신, 기술돌파, 생태가치 전환을 지레대로 삼아 '삼림곡창'의 다원적 발전 경로를 그리고 있다.

휘남현에서는 매 280헥타르 림지마다 '디지털 관리인'이 있다. 13.38만헥타르 산림이 483개의 지능화 격자로 세분화되어있으며 산림보호원들은 위치 확인 및 '원클릭 제보'(一键上传)를 통해 산불 경보 시간을 15분으로 단축하고 불법 방목 사건

을 60% 감소시켰다.

더 깊은 변화는 생산관계의 재구성에 있다. 전 현적으로 28개의 림업합작사를 설립, 5만무 림지를 류통시켜 림하경제를 발전시켰는데 광범한 림업농민들의 년간 소득이 보편적으로 3배 이상 증가되었다. 이 <생태 책임과 경제소득 연결 제도>의 설계는 다양한 경영주체들이 생태 보호에서 리익의 공통점을 찾도록 했다. 제도는 생산관계를 활성화하고 과학기술은 생산력을 활성화시켰다. 장백산 림하에서는 림업산업의 '기술혁명'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모든 인삼에 블록체인추적(区块链溯源) 시스템을 도입해 파종으로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양질 인삼의 합증률(溢价率)을 30%로 높였다. 전 성 림업초원과 학연연구기관과 림업 관련 대학교들은 '14·5'계획 기간 50여개 항목의 실용기술 성과를 이뤘다. 산림 기술 진세(矩阵)를 구축했다. 홍송 접목 기술은 결실 주기를 2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인삼 지능화 방한 기술은 월동 생존률을 크게 높였으며 무인기 농약 살포 기술은 병해충 예방피치 효률을 10배 향상시켰다.

제도는 초석이고 기술은 엔진이다. 림하에서 시작된 이 혁명은 '보호와 개발'의 전통적 모순을 해결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탐구하여 '삼림곡창' 건설에 생태 효익과 식량안전을 겸비한 해결책을 제공했다.

발전 속 '성장 고민'

림하경제 생산액이 천억원을 돌파했지만 길림성은 여전히 '성장 고민'에 직면해있다.

산업사슬이 짧고 부가가치가 낮은 것은 림하경제 업그레이드를 제한하는 관건적인 난제이다. 전 성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은 원료 공급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사슬 연장과 부가가치 향상의 여지가 분명하다. 브랜드 건설 측면에서 길림성의 풍부한 림업특산품은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브랜드 할증 능력과 시장 경쟁력이 부족했다.

브랜드 약세와 산업사슬의 짧음은 본질적으로 발전 단계의 필연적 도전이다. 림하경제가 '규모 확장'에서 '품질 제고'로 전환할 때 필요한 것은 기술의 돌파뿐만 아니라 시장 사고방식의 혁신이기도 하다. 산림식품이 인기를 얻으려면 '제품은 있지만 브랜드가 없고 품질은 있지만 할증률이 없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런 도전에 직면해 길림성은 체계적인 사고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사슬 단절에 대해서는 홍송, 림하인삼, 목이버섯 등 주도 산업에 집중해 정책 지원으로 기업들이 심층가공 분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브랜드 건설 측면에서는 지리적 표지 보호와 지역 브랜드 통합을 강화해 '장백산인삼' 등 공용 브랜드를 활용한 국제추천소개를 진행하고 설계팀을 유지해 제품 포장을 업그레이드하여 산림식품이 '발머리'에서 '고급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추동하고 있다.

인적 자원은 경제성장과 사회 진보의 제1추진력이다. 길림성은 '주문형' 양성 계획으로 기층 림업 전문 인력의 단층이라는 제도적 곤경을 해결했다. 2024년 첫년의 42명 인재들이 기층으로 파견됐는데 인재사슬로 산업사슬을 추진하고 생태사슬을 지키는 이런 혁신적 실천은 길림성 림업의 고품질 발전에 지속가능한 지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삼림곡창' 건설에 구조적 활력을 주입했다.

'삼림곡창'을 든든히 하기 위한 길림성의 탐색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연속 두차례의 '경동·길림성 림하경제축제'(京东·吉林林下经济节)에서 루게 매출액 천만원을 돌파하며 300여개 기업들이 이를 통해 빛을 보았는데 이는 생산과 판매 데이터의 도약일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치를 재구성하는 결정적인 도약으로 림업초원산업의 시장화 전환과 '길림성 브랜드'의 시장화 새 좌표를 마련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동과 전면적으로 협력한 성급 림업초원 주관부문인 길림성림업초원국과 경동이 함께한 이번 경제축제의 진정한 가치는 전국 림구에 '생태제품 가치 실현'의 길림성 방안을 제공한 것이다. 경동의 디지털 인프라와 길림성의 산림자원이 깊이 융합되면서 '삼림곡창'이 개념에서부터 계량이 가능한 매출액으로 전환되고 '록수청산'이 '금산은산'으로 전환되는 시장화 경로를 탐색했다.

길림성림업초원국 부국장 리동우는 경동그룹과의 협력은 매우 의미있다고 지적했다. 이 협력은 높은 차원의 홍보추천소개 플랫폼을 구축해 산림 값이 숨어있는 길림성 림업특산품과 브랜드가 고효율, 고품질로 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식량관'을 깊이있게 실천하고 길림성 '삼림곡창'을 전면적으로 구축하는 데 새로운 엔진을 더해주었다.

/ 길림일보



돈화시 홍석향에 위치한 중성조선족생태촌의 무형문화유산 짚가공 연학 행사가 관광객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은 민간예인 최충해가 능숙한 솜씨로 짚가공품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다.

/ 길림일보